지역 발전계획 공조체계 구축

순창군-전북연구원, 현안사업 정책간담회 개최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17일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함께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9월 실시한 정책간담회에 이어 3년 만에 추진하는 전북연구원과의 기관장급 회의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연구소 역할을 담당하는 전북연구원에 순창군 정책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을 비롯해 순창군 교육발전 특구 지정 추진, 전원마을 500호 조성, 경로당 급식 활성화 및 취약계층 어르신 식사 대책, 강천산 온자실 치유관광지 조성 사업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주제로 다뤄졌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17일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함께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 방식은 해당 부서장이 발표자로 나서고, 전북연구원 전문가들이 검토의견 제시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으며, 간담이 끝나고 군정 전반에 대해 묻고 답변하는 자율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순창군의 비전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창군의 노력에 더해 연구원의 전문지식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순창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출산, 보육, 주거, 교육, 노인복지와 문화·관광 등 순창군 미래산업에 대해 군수로서 그간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전북연구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일회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정책자문과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의 첫 단추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미꽃·야간경관과 함께하는 음악회

임실군, 25일 임실치즈테마파크서 클래식·트로트 공연

최근 새롭게 조성된 야간경관과 장미원 조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장미의 계절 5월에 환상적인 음악회가 열린다.

임실군은 오는 25일 장미 개화 시기에 맞춰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봄밤 장미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음악회는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문화예술공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클래식과 트로트로 구성된 특별한 무대를 선사,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회는 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며 1부 클래식, 2부 트로트 순으로 진행된다.

개그맨 홍석우와 KBS 김태은 아나운서가 이번 음악회의 진행을 맡았으며, 특히 이들은 'KBS 아침마당 전북' 의 메인 MC로 공연 사이사이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 공연에 즐거움을 더해줄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테마파크에 새롭게 조성된 야간경관과 유럽형 장미원의 조성으로 봄밤 아름다운 야경과 장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1부 클래식 공연에서는 테너 김성진, 소프라노 황문영, 바리톤 조지훈 등 유명 성악가, 뮤지컬 배우로 구성된 공감팝페라 커뮨(COMMUNE)이 출연해 뮤지컬 명성황후, 오페라 카르멘 등 다양한 클래식 장르 공연을 통하여 평소 클래식을 접하지 않는 이들에게 새로운 느낌과 감동을 선사한다.

2부 트로트에서는 TV조선 '미스트롯'에서 '해피바이러스'로 많은 사랑을 받은 설하수와 M-NET '트로트X' 우승자인 나미애가 출연해 다양한 트로트 곡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날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들이 음악회를 통해 잊지 못할 봄밤의 추억과 함께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20일 광주교육대학교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순창군-광주교육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순창군이 20일 광주교육대학교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순창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허승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예비 교원 MT와 소규모 학교 봉사 추진을 비롯해 직원 연수, 워크숍, 순창투어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업 사업 발굴 등 상생 기반 마련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허승준 총장은 "순창군과의 교류를 통해 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광주교육대학교와 순창군이 상호 교류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상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발판 삼아 광주교대와 순창군이 서로 자원과 강점을 살려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 및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오늘부터 20일동안 의견접수

남원시는 2023년 6개 사업지구(7,337필지, 304만8,000㎡) 운봉읍내·매요신기·송동1·사율고정·이백2·아영1지구 지적 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개별 통보하고 의견접수를 21일부터 20일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국가사업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 후 "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 철 남원시청 민원과 방문이 어렵거나, 의견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작년에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올해에도 운영,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사업지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장 확인 및 경계 합의 등을 통해 제출한 한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일정은 대상지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권혜정 민원과장은 "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이웃간 경계분쟁도 해결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박희승 총선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

남원시 관계자는 20일, 장수군·임실군·순창군과 박희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을 초청,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총선이 끝난 후 4개 시군 시장·군수가 만난 첫 번째 회동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자체 간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만남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원시는 시의 역점현안인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 △신중년 이주정착·치유힐링 복합단지 조성 △요천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친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박희승 국회의원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원격협력 진료 본격

남원시는 지리적 취약성과 거동·교통의 불편성으로 인해 의료이용 접근이 저하된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력 진료를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은 면지역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6개 지역(주천·금지 주생·대강·산동·이백·아영면) 보건지소에서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에 동의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정보통신기설(ICT)를 활용한 진료·자문·복약지도 등을 실시한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보건지소를 내방 해야 했으나, 신규사업 참여 대상자는 보건지소를 찾지 않고도 방문간호사가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진료 및 처방, 복약지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맥류 병해충 방제 당부

임실군이 최근 잦은 봄비로 온난다습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밀·보리 등 맥류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병해충인 붉은곰팡이병, 깜부기병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방제를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은 맥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온난다습한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초기 방제가 가장 중요하고 배수로 정비 등 포장 관리와 적용약제 살포만으로도 병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방제를 위해 출수기 전후로 강우가 예보되면 병 발생 전에는 포자 발아 억제 약제, 병 발생 후에는 균사 생장 억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하고, 습도가 높지 않도록 배수로를 깊게 파는 등 물 빠짐을 좋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깜부기병은 출수 시 이삭에 검은색의 곰팡이가 피는 병으로 포자가 바람에 날려 종자를 감염시켜 발생하므로, 가루가 날리기 전에 검은 이삭을 뽑아 태우고, 종자는 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포장에서 채종하고, 냉수온탕침법을 통한 종자소독이 필수적이다. /임실=진홍영 기자